

오산시, 페스티로폴 100% 재활용

- 4대의 재활용품 수거차량 매일 운행

쓰레기 종량제 실시 후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환경은 급격히 개선되고 있다. 작년만 해도 쓰레기는 대부분 매립장으로 직행했고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조차도 땅속에 사장되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이제 많은 것들이 재활용 품목으로 분리수거되어 자원으로 재활용되고 있음은 보통 다행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아직 스티로폴 등 일부는 재활용 품목으로 지정되지 않아 일반 쓰레기로 매립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까운 일이다. 다행스럽게도 일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분리수거하여 재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경기도 관내 모든 시군은 스티로폴을 재활용 품목으로 지정하여 분리수거하고 있다. 그래서 오산시를 찾아 그간의 운영 현황을 들어봤다.

“현실적으로 페스티로폴을 매립한다는 것이 한정된 매립장 규모로 인해 이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소각을 한다고 해도 완전 연소시키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더욱이 쓰레기 감량차원에서 하나라도 더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산시 쓰레기 적판장에서 만난 환경보호과 청소1계 박용철 계장의 말이다. 오산시는 페스티로폴을 100% 재활용한다는 목표하에 모든 페스티로폴을 무상 수거하여 적판장에 설치된 기계를 통해 인고트형태로 감용처리하고 있다. 월 평균 1천8백여kg이 감용되어 8월말 현재 8,781kg이 판매되어 2백4천5만원의 판매수익을 얻고 있다. 오산시는 4대의 재활용품 수거차량을 매일 운행하여 폐지, 유리병, 페플라스틱, 스티로폴 등을 수거하고 있다.

실제 오산시 산하 쓰레기 적판장에는 스티로폴 감용기전담 운영요원 1명이 고정 배치되어 매일 수거되는 스티로폴을 감용하고 있다.

“페스티로폴 처리에 있어 수거처리비가 판매수익금의 5배나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오산시는 환경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기에 이러한 비용을 아깝게 생각지 않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티로폴도 재활용 품목으로 지정되기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오산처럼 여타 재활용 품목과 함께 수거하면 수집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자원이 그냥 매립된다면 국가차원에서 자원의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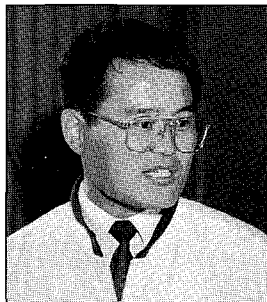
오산시는 울초종량제 실시부터 관내 유선방송에 비디오를 방영하고, 홍보차량을 통한 방송과 팸플렛 배포, 회보, 환경소식지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지금은 부녀회에

서 분리수거해 두었다가 재활용 치량이 오면 넘겨주는 등 관민협조하에 분리수거가 잘 시행되고 있다.

끝으로 자원재활용 활동에 있어 어려운 점이나 바램을 박계장에게 들어봤다.

“향후 컵라면 용기나 일회용 도시락 등의 품목도 재활용했으면 합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이나 정보가 필요합니다. 주민들에 홍보자료로 공지하고 저희도 재활용 방안을 수립하고 싶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읍지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기에 우리사회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구나 생각하니 그들이 여간 듬직한게 아니었다.



박용철/오산시 청소1계장

